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정 태 연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n = 142명)와 그들의 부모(n = 142명)가 젊은 세대, 기성 세대 및 한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6개의 가치지향차원, 10개의 성격특질형용사차원, 3가지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빈도,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뚜렷한 세대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몇몇 측면에서의 세대차이는 평가자(자녀 대 부모)에 따라 달랐는데, 이는 각 세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세대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평가자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자녀와 부모 모두 한국사회를 6개의 현실인식차원, 무규범성, 정치적 통제감, 소외의식 및 주관적 안녕감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치지향차원과 성격특질차원 및 소외의식은 젊은 세대 및 기성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과, 그리고 현실인식차원, 무규범성 및 정치적 통제감은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과 큰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사회의 특성과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세대차이, 세대간 유사성, 세대지각에 대한 평가자효과,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한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세대의 행동은 그 사회 의 문화적 효과, 출생동시집단(cohort) 효과 및 연령 효과의 산물이다(윤진, 1985). 따라서, 동일한 사회 의 서로 다른 세대들은 연령 및 역사·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 중에서도 특히 가치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0-005-C00012).

관과 같은 의식구조차원에서의 세대차이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사회가 해방 이후 심각한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는 나라로서, 해방 이후의 근대화가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가 해방 이전까지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일컫는 인본주의, 권위주의 및 집합주의 등의 가치관을 유지해 온 반면, 해방 이후에 근대적 가치관을 구성하는 물질주의, 평등주의 및 개인주의 등의 가치관이 유입되어 한국인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임희섭, 1980). 뿐만 아니라, 서구문화가 한국인의 가치관에 미친 영향은 세대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성인 세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면에 청소년 세대는 서구지향적인 가치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김애순, 1997; 나은영과 민경환, 1998; 나은영과 차재호, 1999; 신은숙, 1976; 윤진, 1985; 이재창, 최운보, 정영애와 최경신, 1983; 정영숙, 김향숙과 권수애, 1997; 정철희, 1997; 조성남, 1991; 조혜선, 1990; 차재호, 1985; 한상필, 1997; 홍승직, 1994; Inglehart,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진 세대차이는 연구마다 종종 다른데(정태연과 한광희, 2001),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세대차이에 대한 연구방법상의 차이일 수 있다. 또한, 세대차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연령과 출생동시집단 효과로 인해 세대간의 유사성보다는 세대간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특정 영역에서는 세대간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더 두드러진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세대차이를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세대간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세대차이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

가치관 등과 관련된 세대차이를 연구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특정 세대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지표는 평가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측정치로서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보고한 가치관 점수뿐만 아니라 이들이 평정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점수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두 평가대상에 -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대 - 대한 평정치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 개인이 보고한 자신의 가치관은 타인이 관찰할 수 없고 그 개인만이 접근가능한 심리내적인 요인들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그 세대의 관찰된 행동에 근거한 추론이다. 한 개인의 행동이 그의 내적인 가치체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특정 세대의 가치관은 측정하는 방식 혹은 평가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태연과 한광희(2001)의 연구가 이러한 차이점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가치관을 보고하도록 했을 때, 대학생들은 상당히 낮은 물질지향적 가치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상당히 일치한다(나은영과 차재호, 1999; 이재창 등, 1983; 차재호, 1985).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평가하도록 했을 때,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도 더 물질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차이를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평가자에 따른 효과이다. 가령,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평가할 때,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평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가간에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 평가자간 불일치는 세대차이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세대차이는 작게는 가족 내에서 세대간의 불신이나 대화의 단절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급격한 문화적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는 세대간의 갈등이 매우 커서 이것이 때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조성남, 1991). 여기서 세대차이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각된 세대차이로서, 이것은 당사자의 지각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보다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지각될 수 있다. 세대차이가 갈등의 한 요인이라고 볼 때, 세대차이에 대한 왜곡된 지각은 세대간의 갈등을 심화 혹은 완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세대에 대한 평가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동시에 평정하기도 했다(예로, 이재창 등, 1983; 정태연과 한광희, 2001). 그러나, 각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를 모두 평가해서 그러한 평가치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차이를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세 번째 사항은 평가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대별 근대화에 따른 서구문화의 차별적 영향이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차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화로 나타난 구체적 변화의 종류와 정도는 의식구조의 특정 측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변동이 반드시 세대간 차이를 증폭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적 변동의 효과가 매우 강력할 때, 이러한 효과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그 사회 구성원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기존의 세대차이에 관한 몇몇 연구들도 이러한 점을 함축해 주는데, 말하자면 세대간에는 의식구조에서 그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 2000; 조성남, 1991; 차재호, 1985; Bengtson, 1975). 결국, 세대차이를 논의할 때 어떤 측면에서의 세대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세대차이에 대한 연구는 누가 누구의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과 관련해서는 각 평가자가 젊은 세대, 기성 세대 및 한국사회를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평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세대 및 그렇지 않은 세대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각 세대를 지각하는데 평가자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대간 차이점으로서 가치관, 성격특질, 비전통적 성행동,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보았으며, 세대간 유사점으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세대간 차이점과 관련된 변인들

가치관에 있어서 세대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동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모두 상당히 부정적인 형태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흔히들 한국사회가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특성 중에서 장점(각각, 합리성, 개인존중, 준법성, 공사구분, 독립심 등; 부모공경, 상부상조, 인본주의 등)보다는 단점(각각 물질지상주의, 이기주의, 윤리적 타락, 편법주의 등; 의존성, 권위주의, 비합리성, 신분주의, 연고주의 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예로, 나은영, 1995; 나은영과 민경환, 1998). 또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물질주의, 편법주의 및 배급사상 등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이재창 등, 1983). 사회적으로도 계층구조의 변화로 인해 평등주의와 업적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관료체제가 득세하고,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지향의 가치를 조장하고 있다(이재창 등, 1983). 특히, 서구의 문화적 영향이 성인 세대보다는 청소년 세대에 미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나은영과 차재호, 1999; 이재창 등, 1983; 정영숙, 김향숙과 권수애, 1997; 조성남, 1991; 한상필, 1997; 홍승직, 1994), 서구적 가치의 부정적 측면은 젊은 세대에게서, 반면 전통적 가치의 부정적 측면은 기성 세대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가치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구성원들이 보이는 행동 혹은 그 행동을 지칭하는 성격특질형용사차원에서도 상당한 세대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기존의 문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서구적 가치체계로의 이행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이행은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서구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성격특성들을 더 많이 보인다(정태연과 한광희, 2001). 가령,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더 개인주의적이며 덜 폐쇄적이고 더 감각적이며 더 이기적이고 덜 획일적이며 더 반항적인 특성들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기성 세대는 여전히 전통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행동특성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순종적이고 확실적인 특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에서의 세대차이는 과거보다 문화변동의 속도가 더 빠른 현대에서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의 빈도에서도 세대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교에 기초한 전통적인 판단체계는 남녀간의 성행동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서구문화는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진보적인 가치관을 함양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성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학술적인 연구들도 청소년들이 남녀간의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행동의 빈도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영희, 1993; 김혜원과 이해경, 2000; 장휘숙, 1995).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 세대에 비해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하여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그러한 행동의 빈도도 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의의식과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서 세대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 개인이 경험하는 생애사건이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볼 때(이훈구, 1997), 서로 다른 세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적 및 사회적 사건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도 다를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소외의식의 정도에서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세대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에 반영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정태연과 한광희, 2001). 앞에서 살펴본 여러 변인들이 세대차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변인들이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세대들의 가치관이나 성격특성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면들이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

러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세대간 유사점과 관련된 변인들

한국인들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볼 때, 한국인들은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근대화에 따른 문화적 변동의 과정 속에서 한국인들은 사고나 가치체계와 실질적 행동체계가 서로 다른 이중구조를 경험하게 되는데(김병국, 1997; 나은영과 민경환, 1998; 함재봉, 1997), 이것이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근거한 인식의 틀 속에서 주로 두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근거한 한국사회의 현상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한국인들의 가치체계와 한국사회의 현실간에 심각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이재창 등, 1983),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가 한국인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규칙이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이나 편법에 근거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운용됨으로써,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가치체계와 사회적 현실간에 심각한 괴리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통적인 도덕과 가치체계가 존중될 때 한국사회는 나름대로 그것에 근거한 기준과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진교훈, 1997).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물질적 이익을 앞세운 편법과 비리가 만연함으로써 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양식이 자신들의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이 사회적 무규범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정치 및 경제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기력과 소외감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통적 관료체계의 특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무기력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정태연과 한광희(2001)의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사회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서구문화의 부정적 특성과 전통문화의 부정적 특성을 적어도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사회가 무규범적인 특성이 높은 대신에 정치적 통제감은 낮다고 지각했으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소외의식도 높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식에 있어서 세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들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는 세대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주관적 안녕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사회는 서구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가 혼재해 있는 사회로서, 한국인의 행동은 두 문화의 부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가치체계와 사회적 현실간의 심각한 괴리, 무규범성이나 정치적 무력감 등을 매우 보편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한 경험적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을 매우 낮게 지각한 것처럼(정태연과 한광희, 2001), 대부분의 세대들은 비슷하게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가치관과 성격특성에서 서구문화와 관련된 특성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둘째,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덜 부정적인 태도

를 보이고 그러한 행동을 더 빈번하게 할 것이다. 셋째, 소외의식과 주관적 안녕감에서 세대차이가 존재하며, 세대차이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세대차이에 관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 평가자간의 차이는 탐색적인 차원에서 알아보았다. 넷째,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즉, 현실인식, 무규범성, 정치적 통제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며 평가자간에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사회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은 그 사회의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와 그들의 부모로 하여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치관, 성격특질,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빈도, 소외의식과 주관적 안녕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은 한국사회를 현실인식차원, 무규범성, 정치적 통제감 및 주관적 안녕감 차원에서 평정하였다.

방 법

참가자

서울 소재 한 대학에 재학중인 142명(남: 101명, 여:39명, 결측치: 2명)의 학생 및 그들의 부모 중 142명(부: 58명, 모: 82명, 결측치: 2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도시출신이 121명이었으며 농어촌 출신은 19명이었다(결측치 2명). 63명의 학생이 종교가 있었으며 77명은 없었다(결측치 2명).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2.38($SD = 2.35$)세였으며, 이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5점 척도 상에서 3.09 ($SD = .64$)였다. 학생들의 아버지 학력은 초졸 8명, 중졸 16명, 고졸 45명, 대졸 52명, 대학원 이상이 13명이었다(결측치 8명). 학생들의 어머니 학력은 초졸 16명, 중졸 20명, 고졸 70명, 대졸 23명, 대학원 이상이 6명이었다(결측치 7명). 본 연구에 참가한 142명 부모의 평균 연령은 50.48($SD = 4.88$)세였다. 이들 중 도시출신이

73명이었으며 농어촌 출신이 67명이었다(결측치 2명). 또한, 종교가 있는 사람이 86명이고 없는 사람이 53명이었다(결측치 3명).

측정도구

가치지향, 성격특질, 현실인식, 그리고 소외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채창 등(1983)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이용하였다. 가치지향척도는 총 6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1부터 5) 양극척도 상에서 물질주의, 실리주의, 편법주의, 안정주의, 귀속주의, 그리고 온정주의를 측정한다. 성격특질형용사척도는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1부터 5) 양극척도로 패쇄적, 권위적, 이기적, 감각적, 획일적, 현실적, 무기력, 퇴폐적, 순종적, 그리고 보수적 특성을 측정한다. 현실인식척도는 총 6문항이며 각 문항은 가치지향척도와 동일한 6개 차원의 특성을 리커트형 5점(1부터 5) 척도 상에서 측정한다. 소외의식척도는 총 6문항이며 리커트형 5점(1부터 5)척도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71이었다. Neal과 Groat(1974)의 무규범성(normlessness) 척도를 한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이며 리커트형 4점(1부터 4) 척도를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69였다. Paulhus(1983)의 통제영역척도(Spheres of Control)의 3개 하위척도 중에서 정치적 통제감(political control)에 대한 10개의 문항을 한역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형 7점(1부터 7)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는 .66이었다. Campbell(1981)의 주관적 안녕감(Index of well-being) 척도를 이명신(1998)이 한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7점 (1부터 7) 양극척도를 이용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89이었다. 마지막으로, Rettig와 Pasamanick(1959)의 도덕적 행동척도(Moral Behavior Scale)의 한 하위척도인 비전통적 성행동(Sexual Misbehavior)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3문항이며 리커트형 10점(1부터 10) 척도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측정치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과 그 부모는 가치지향척도, 소외의식척도와 성격특질형용사척도 상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각각 평가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현실인식척도를 이용하여 한국사회를 평정하였으며, 대학생은 기성세대가 그리고 부모는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추측해서 평정하였다. 비전통적 성행동척도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은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그러한 행동의 빈도를 평정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젊은 세대, 기성 세대 및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을 평정하였으며, 한국사회의 무규범성과 정치적 통제감도 평정하였다.

절 차

자료수집은 2000년 11월과 12월중에 이루어졌다.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점을 부여받았다. 대학생들에게 자신 및 자신의 부모의 응답과 관련해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었다. 대학생들의 설문작성은 수업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질문에 응답하는데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대학생들에게 그들의 부모 중 한 명이 작성해야 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다음, 이들은 자신의 부모 중 한 명에게 설문지를 작성토록 요청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를 수업시간을 통해 연구자에게 제출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크게 세기간 특성을 비교하는 변인들과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 두 범주의 변인들을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은 각 변인에 있어서 평가자(자녀 대 부모)¹⁾와 평가대상자

표 1.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에 대한 6개 가치평가차원에서의 평가

가치평가차원	자녀평가		부모평가		F(1, 282)		
	젊은 세대	부모 세대	젊은 세대	부모 세대	평가자	평가대상자	상호작용
물질주의	3.26(.91) ^a	2.69(1.02) ^b	3.26(1.12) ^a	2.31(1.23) ^c	3.78	79.92 ^{***}	4.86 [*]
실리주의	2.77(.99) ^a	2.59(.99) ^a	2.68(1.26) ^a	2.15(1.08) ^b	7.32 ^{**}	18.19 ^{***}	4.55 [*]
편법주의	3.33(.97) ^a	2.87(1.15) ^b	2.91(1.30) ^b	2.24(1.17) ^c	23.69 ^{***}	45.25 ^{***}	1.47
안정주의	1.89(.82) ^a	3.39(1.07) ^b	2.18(1.17) ^c	2.85(1.30) ^d	1.62	162.70 ^{***}	23.88 ^{***}
귀속주의	3.12(1.05) ^{ab}	3.29(1.05) ^a	3.29(1.30) ^a	2.87(1.27) ^b	1.28	2.03	11.43 ^{***}
온정주의	3.15(1.12) ^a	3.85(1.04) ^b	2.72(1.29) ^c	3.12(1.37) ^a	24.33 ^{***}	43.65 ^{***}	3.05

주. 평가는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어진 차원에서 같은 첨자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점수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는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로 변량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한 가정내의 자녀와 부모는 각 세대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변량분석의 독립적 표집이라는 가정을 훼손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측정치에 대하여 자녀와 부모의 평가간에 상관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경우 상관의 크기는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평가가 상당히 독립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량분석을 통해 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음을 함축해 준다.

세대간 차이를 반영하는 변인들

가치지향차원

자녀와 부모는 가치지향척도를 이용하여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가치관을 평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차원에서의 평가치에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혼합 설계 2(평가자: 자녀와 부모) X 2(평가대상자: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이원변량분석(mixed design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리주의, 편법주의 및 온정주의에서 평가자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바, 부모보다도 자녀가 전체 평가대상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귀속주의를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평가대상자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전체 평가자들은 젊은 세대가 물질주의, 실리주의와 편법주의적 특징을, 그리고 기성 세대가 안정주의와 온정주의적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편법주의와 온정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물질주의, 실리주의와 귀속주의에서 자녀가 지각한 세대차이보다 부모가 지각한 세대차이가 더 큰 반면, 안정주의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1) 본 연구에 평가자로 참가한 대학생과 그의 부모를 자녀와 부모라는 용어로 칭하기로 한다. 이것은 단지 부모에 대응하는 용어로 자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일 뿐,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지칭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은 각각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식의 젊은 세대에 대한 평가와 부모의 기성 세대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속한 세대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자신의 세대에 대한 평가 혹은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가 등으로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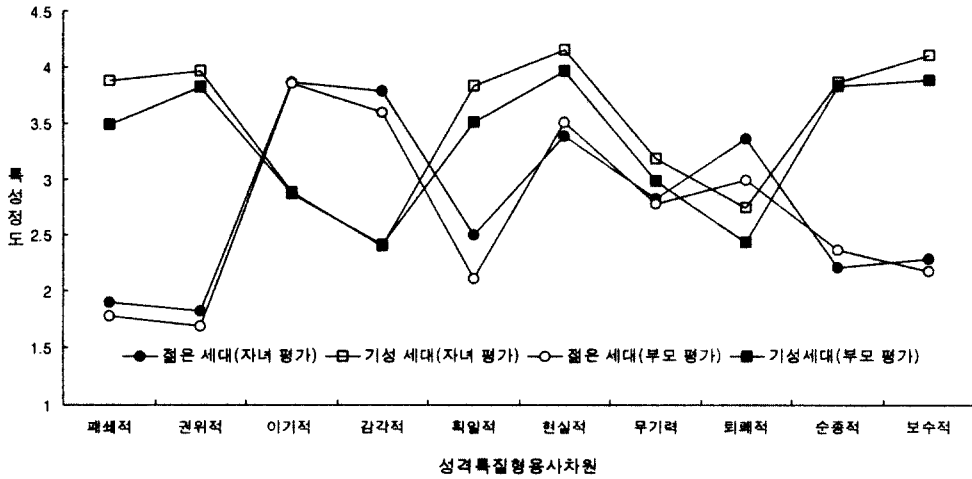


그림 1. 10개의 성격특질형용사차원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에 대한 평가(5점 척도상에서 측정).

각 가치차원에서 평가치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비교(simple comparison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1), 동일한 평가자에 의한 평가치를 비교해 보면, 자녀와 부모 모두 거의 대부분의 가치차원에서 세대간에 차이가 있다고 지각했다. 동일한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치를 비교해 보면, 부모에 비해 자녀는 젊은 세대가 편법주의와 온정주의 특성을 더 많이 그리고 안정주의는 더 적게 가지고 있다고 지각했다. 또한, 부모에 비해 자녀는 기성세대가 모든 차원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했다. 평가자 자신들이 속하는 세대에 대한 평가치를 비교해 보면, 젊은 세대가 물질주의, 실리주의 및 편법주의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기성 세대는 안정주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귀속주의와 온정주의에서는 세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²⁾

2) 표에서 보듯이 평가자 자신이 속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평가치들간의 비교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비교가 세대차이와 관련해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유사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격특질형용사차원

참가자들은 성격특질형용사차원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차원에서의 평가치에 대하여 혼합설계 2(평가자: 자녀와 부모) X 2(평가대상자: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의 주효과가 폐쇄적, 권위적, 획일적, 퇴폐적 및 보수적 차원에서 유의미했는데, 각각 $F(1, 282) = 19.17, 6.73, 22.64, 14.51$ 과 $6.36, p < .05$, 이는 부모에 비해 자녀가 전체 평가대상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차원에서 평가대상자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순서별로 $F(1, 282) = 989.39, 1377.25, 183.63, 294.67, 319.71, 44.97, 11.28, 61.32, 587.66$ 과 $707.34, p < .001$,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더 이기적, 감각적 및 퇴폐적인 것으로 지각된 반면 나머지 7개의 차원에서는 기성 세대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모든 차원에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 차원에서 평가치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비교를 실시하였다. 평가자내에서 볼 때, 거의 모든 성격차원에서 자녀와 부모는 세

대간에 차이가 있다고 지각했다. 즉, 모든 차원에서 자녀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수 그리고 무기력 차원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젊은 세대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획일적 차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아 젊은 세대에 대한 평가가 평가자들간에 상당히 일치했다. 그러나, 부모에 비해 자녀는 기성 세대가 폐쇄적, 획일적, 퇴폐적 및 보수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해서 젊은 세대보다는 기성 세대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자간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신이 속한 세대에 대한 평가치들간의 차이는 무기력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특질형용사차원에 대한 세대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평가자에 상관없이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비전통적 성행동

자녀와 부모는 비전통적 성행동과 관련된 3가지

차원(결혼전 성관계, 결혼후 부정한 성관계, 그리고 자신이 돌봐주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상대방을 버리는 비인간적 처사)에 대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부정적 태도 및 행동빈도를 평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차원에서의 평가치에 혼합모형 2(평가자: 자녀와 부모) X 2(평가대상자: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인간적 처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결혼전 성관계의 행동빈도에서만 평가자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이 두 차원에서 부모에 비해 자녀가 전체 평가대상자들을 더 높게 평가했다. 평가대상자의 주효과는 결혼후 부정한 성관계의 행동빈도를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해서, 기성 세대가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가 전반적으로 비전통적 성행동을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인간적 처사의 행동빈도를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바, 이는 결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정

표 2.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행동의 빈도

비전통적 성행동	자녀평가		부모평가		F(1, 282)		
	젊은 세대	기성 세대	젊은 세대	기성 세대	평가자	평가대상자	상호작용
부정적 태도							
결혼전 성관계	4.23(2.35) ^a	8.47(1.63) ^b	5.18(2.62) ^c	8.29(2.37) ^b	3.13	542.82 ^{***}	13.07 ^{***}
결혼후 부정한 성관계	7.71(2.32) ^a	8.75(1.78) ^b	6.98(2.69) ^c	8.99(1.85) ^b	1.36	102.89 ^{***}	10.40 ^{**}
비인간적 처사	8.36(1.88) ^a	8.52(1.75) ^a	6.97(2.51) ^b	8.87(1.73) ^c	7.09 ^{**}	59.51 ^{***}	42.24 ^{***}
전체	6.77(1.65) ^a	8.58(1.40) ^b	6.38(2.26) ^a	8.72(1.70) ^b	.53	301.70 ^{***}	4.75 [*]
행동의 빈도							
결혼전 성관계	7.34(1.73) ^a	4.13(2.04) ^b	5.97(2.33) ^c	3.95(2.74) ^b	15.96 ^{***}	205.98 ^{***}	10.56 ^{**}
결혼후 부정한 성관계	5.37(2.15) ^{ab}	5.66(2.40) ^a	5.30(2.28) ^{ab}	4.89(2.84) ^b	3.23	.10	4.19 [*]
비인간적 처사	6.23(1.95) ^a	5.27(2.17) ^b	5.83(2.34) ^a	4.99(2.82) ^b	2.18	31.27 ^{***}	.14
전체	6.31(1.44) ^a	5.02(1.84) ^b	5.70(1.93) ^c	4.61(2.55) ^b	7.47 ^{**}	68.96 ^{***}	.50

주. 평가는 10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차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행동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어진 차원에서 같은 첨자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점수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 는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적 태도 및 행동빈도에서의 세대간의 차이를 부모에 비해 자녀가 더 크게 지각하는 반면, 이외의 차원에서는 그 반대입을 지적해 준다.

각 차원에서 평가치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비교를 실시하였다. 평가자내에서 볼 때, 비인간적 처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의 세대차이에 대한 자식의 평가 그리고 결혼후 부정적인 성관계의 행동빈도에서의 세대차이에 대한 자식 및 부모의 평가를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평가자들은 유의미한 세대차이가 있다고 지각했다. 평가대상자내에서 볼 때, 결혼후 부정적인 성관계와 비인간적 처사의 행동빈도에서만 젊은 세대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기성 세대의 경우는 결혼후 부정적인 성관계의 행동빈도에서만 자녀와 부모의 평가가 유의미하게 달랐다. 이는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한 기성 세대의 부정적 태도와 행동빈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자간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함축한다. 자신이 속한 세대에 대한 평가치들간의 차이도 결혼후 부정적인 성관계의 행동빈도를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했다.

소외의식

자식과 부모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소외의식을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 이들의 평정치들은 모두 중간 수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평가한 젊은 세대의 소외의식은 2.85($SD = .65$)이고 기성 세대의 소외의식은 2.93($SD = .59$)이었으며, 부모가 평가한 젊은 세대의 소외의식은 2.81($SD = .69$)이고 기성 세대의 소외의식은 2.75($SD = .60$)였다. 소외의식 평가치에 대하여 혼합모형 2(평가자: 자녀와 부모) X 2(평가대상자: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식과 부모 모두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서로 비슷한 정도의 소외의식을 경험한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

자녀와 부모는 젊은 세대, 기성 세대 및 한국 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을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평가한 주관적 안녕감은 순서대로 4.53($SD = .86$), 3.86($SD = .78$)과 3.03($SD = .84$)이었으며, 부모의 평정치는 5.02($SD = .98$), 4.06($SD = 1.03$)와 2.98($SD = .99$)이었다. 이러한 평가치에 대하여 혼합모형 2(평가자: 자녀와 부모) X 3(평가대상자: 젊은 세대, 기성 세대 및 한국사회)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F(1, 282) = 7.38, p < .01$, 자녀보다 부모가 평가대상자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평균적으로 더 높게 평가했다. 평가대상자의 주효과가 유의미했는데, $F(2, 563) = 383.07, p < .001$, 이는 젊은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게, 한국 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게 그리고 기성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에 상호작용이 유의미해서, $F(2, 563) = 8.97, p < .001$,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자녀보다 부모가 더 크다고 지각하였다. 단순비교를 실시한 결과, 한국사회에 대한 두 평가치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모든 두 평가치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세대별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해보았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평가와 관련해서 자녀와 부모의 평가가 상당히 독립적이었다. 또한, 평가자내에서 볼 때, 한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변인들에서의 다른 세대의 평가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평가자내에서도 특정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평가는 그 세대의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각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함에 있어서 평가자내에서 이루어진 그 세대에 대한 비전통적 성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치들만을 고려하였다.

자녀평가에 근거하여, 젊은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을 이 세대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측정치로 회귀하였

표 3.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중다상관계수

예측변인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중다상관(R)	
	젊은 세대	기성 세대
자녀가 평가한 변인들		
젊은(기성) 세대의 소의의식	.41***	.41***
젊은(기성) 세대에 대한 6개 차원에서의 가치평가	.32*	.38**
젊은(기성) 세대의 대한 10개 차원에서의 성격평가	.56***	.59***
전체	.65***	.66***
부모가 평가한 변인들		
젊은(기성) 세대의 소의의식	.34***	.36***
젊은(기성) 세대에 대한 6개 차원에서의 가치평가	.36**	.17
젊은(기성) 세대의 대한 10개 차원에서의 성격평가	.70***	.60***
전체	.74***	.66*

주. 각 평가자내에서 젊은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은 이 세대에 대한 3가지 유형의 평가치들만이 그리고 기성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은 이 세대에 대한 3가지 유형의 평가치들만이 예측변인으로 사용되었다.

* $p < .05$. ** $p < .01$. *** $p < .001$.

으며, 기성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을 이 세대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측정치로 회귀하였다. 부모평가에 근거해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3)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

듯이, 자녀평가의 경우 소의의식과 가치차원 및 성격 평가차원들이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과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예측변인들이 각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의 변량을 40% 이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평가의 경우, 젊은 세대에 대한 중다상관은 자녀평가에 근거한 것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나, 자녀평가보다는 부모평가에서 예측변인들이 젊은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기성세대에 대한 중다상관의 크기는 자녀평가에 근거한 것과 일치했지만, 부모평가에서 6개의 가치차원들이 가지는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시각에서 볼 때, 부모세대들

3) 자녀평가에서의 경우,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소의의식 회귀계수 B는 각각 $-.54(p < .001)$ 와 $-.53(p < .001)$, 표 1에 제시된 순서대로 6개의 가치차원에서 젊은 세대에 대한 B는 $-.05, -.07, -.03, -.29(p < .01), -.03, -.02$ 였으며, 기성 세대에 대한 B는 $-.14(p < .06), -.04, -.06, -.03, -.13(p < .05), -.13(p < .05)$ 이었다. 그림 1에 제시된 순서대로 10개의 성격평가차원에서의 젊은 세대에 대한 B는 $-.23(p < .08), -.31(p < .05), .01, .12, -.08, .15(p < .05), -.27(p < .001), -.25(p < .05), .16, -.06$ 이었으며, 기성 세대에 대한 B는 $.04, .06, .06, .11, .01, -.04, -.35(p < .001), -.23(p < .01), .00, -.37(p < .01)$ 이었다. 부모평가에서의 경우,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소의의식 B는 각각 $-.48(p < .001)$ 와 $-.62(p < .001)$, 6개의 가치차원에서의 젊은 세대에 대한 B는 $.02, -.18(p < .05), -.15(p < .05), -.09, .14(p < .05), -.08$ 이었으며, 기성 세대에 대한 B는 $-.02, -.08, -.05, .01, .00, -.09$ 이었다. 10개의 성격평가차원에서의 젊은 세대에 대한 B는 $.02, -.15, -.07, -.08,$

$-.33(p < .001), .01, -.31(p < .001), -.17(p < .01), .12, -.04$ 이었으며, 기성 세대에 대한 B는 $-.26(p < .05), .12, -.25(p < .05), -.06, -.15, .14, -.16(p < .09), -.27(p < .01), -.13, -.01$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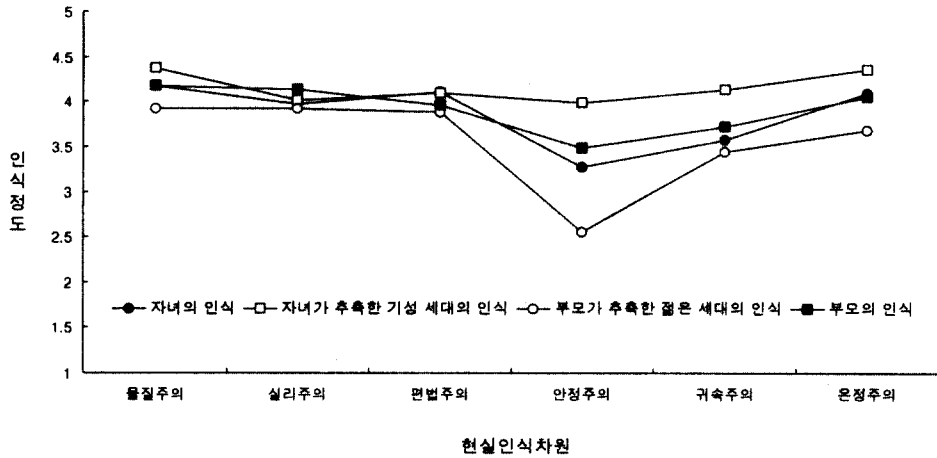


그림 2. 6개의 현실인식차원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인식과 그들이 추측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인식(5점 척도 상에서 측정).

의 주관적 안녕감은 그들의 가치관보다는 소외의식이나 성격특성평가와 더 크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3가지 유형의 예측변인들이 가지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량은 평가자나 평가대상자에 크게 상관없이 상당히 비슷했다.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변인들

현실인식차원

자녀와 부모는 현실인식척도를 이용하여 한국사회를 평정하였으며, 또한 자녀는 기성세대의 그리고 부모는 젊은 세대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추측해서 평정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자녀의 평가와 그들이 예측한 기성 세대의 평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쌍체비교를 실시하였다.4) 그 결과, 물질주의, 안정주

의, 귀속주의 및 온정주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각각 $t(141) = 2.78, 8.76, 6.76$ 과 $4.87, p < .01$. 이는 자녀들이 자신들보다도 기성 세대들이 한국사회가 이러한 차원의 특성을 더 많이 지닌 것으로 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그들이 예측한 젊은 세대의 평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쌍체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법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순서 별로 $t(141) = 2.72, 2.18, 8.22, 3.16$ 과 $4.89, p < .05$. 즉, 이러한 차원에서 부모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치가 젊은 세대들의 평가치보다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자녀의 평가와 부모의 평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안정주의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t(282) =$

4) 이 자료에서 평가자는 자녀와 부모의 두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국사회를 하나의 동일한 평가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보고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평가대상자는

자녀와 부모에 따라 달랐다. 즉, 자녀는 기성 세대의 그리고 부모는 젊은 세대의 인식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본 자료에 대하여 혼합설계 2(평가자) x 2(평가대상자) 변량분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표 4.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중다상관계수

변 인 들	중다상관계수(R)
자녀가 평가한 변인들	
한국사회에 대한 6개 차원에서의 인식평가	.50***
한국사회의 무규범성	.16
한국사회의 정치적 통제감	.14
전체	.50***
부모가 평가한 변인들	
한국사회에 대한 6개 차원에서의 인식평가	.40***
한국사회의 무규범성	.17*
한국사회의 정치적 통제감	.25**
전체	.44***

주. * $p < .05$. ** $p < .01$. *** $p < .001$.

2.03, $p < .05$. 이는 대부분의 차원에서 자녀와 부모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실제 매우 유사함을 함의한다.

무규범성과 정치적 통제감

자식과 부모는 한국사회의 무규범성을 4점 척도 상에 그리고 정치적 통제감을 7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평가한 무규범성의 평균은 2.77($SD = .43$)이었으며 부모 평가의 평균은 2.80($SD = .52$)으로 나타나, 이들은 한국사회를 중간 수준 이상으로 무규범적인 사회로 인식했다. 또한, 이 두 평가치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녀가 평가한 정치적 통제감의 평균은 3.53($SD = .67$)이었으며 부모 평가의 평균은 3.58($SD = .63$)로, 한국사회의 정치적 통제감이 중간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관적 안녕감

앞의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세대차이와 관련된 부

분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녀는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을 5점 척도 상에서 3.03($SD = .84$), 부모는 2.98($SD = .99$)이었으며, 이 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평가자별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무규범성 및 정치적 통제감이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⁵⁾ 이 표에서 보듯이, 자녀평가에 근거할 때, 한국사회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예측변인들이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을 약 25%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설명량은 거의 전적으로 6개의 현실인식차원에 근거한다. 개별적인 회귀분석에서 무규범성과 정치적 통제감이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설명량을 제

5) 자녀평가의 경우,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6개의 현실인식차원에서의 B는 -.13, -.17, .03, .06, -.32($p < .001$), -.11이었으며, 무규범성과 정치적 통제감의 B는 각각 -.31($p < .07$)과 .18($p < .10$)이었다. 부모평가의 경우, 6개의 현실인식차원에서의 B는 .21($p < .06$), -.24($p < .05$), -.06, .07, -.18($p < .05$), -.20($p < .06$)이었으며, 무규범성과 정치적 통제감의 B는 각각 -.32($p < .05$)와 .39($p < .01$)이었다.

공하지 못했다. 부모평가에 근거할 경우, 동일한 3 가지 유형의 변인들이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을 19% 정도 설명했지만, 개별적인 회귀분석에서 무규 범성 및 정치적 통제감도 한국사회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량을 가지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와 그들의 부모가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및 한국사회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가치관, 성격특질,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행동빈도,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차원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간의 차이가 뚜렷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평가차원 특히, 가치관과 관련된 평가에서는 평가자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존재했다. 셋째, 평가자에 상관없이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넷째, 각 세대 및 한국사회의 평가와 관련해 살펴본 이러한 변인들이 그 세대 및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논의하겠다.

세대차이의 특성들

6개의 가치차원에서 이루어진 평가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평가자에 상관없이 젊은 세대는 서구문화의 부정적인 측면(물질주의, 실리주의 및 편법주의)을, 반면에 기성 세대는 전통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안정주의와 온정주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자와 평가차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자녀와 부모의 평가를 비교해 보면, 자녀는 귀속주의와 실리주의에서 세대차이가 없다고 지각한 반면, 부모는 모든 차원에서 세대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가 세대차이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속주의를 제외한 차원들에서 각 평가자가 지각한 세대차이의 크

기를 보면, 자녀는 전통적 가치차원에서 세대차이를 크게 그리고 서구적 가치차원에서는 작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특성보다는 다른 세대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특성 때문에 세대차이가 심화된다고 보는 경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이것이 세대차이의 원인을 자신들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게서 더 찾고자 하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 어느 세대를 평가할 때 평가자들간의 일치 정도가 더 큰 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젊은 세대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매우 유사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3개의 차원에서도 그 절대적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성 세대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간에는 모든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자간 일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젊은 세대에 대해 이용 가능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부모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상황은 다르지만 발달적으로 젊은 시기를 거치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쏟음으로써 젊은 세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보편화되면서 부모는 이러한 세대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셋째, 가치차원에서 자신이 속한 세대에 대한 평정치를 비교해 보면, 귀속주의와 온정주의에서는 유의미한 세대차이가 없었지만, 젊은 세대는 물질주의, 실리주의 및 편법주의를 그리고 기성 세대는 안정주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다른 세대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신의 세대에 대한 평가가 좀 더 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함의하는 것처럼(나은영과 차재호, 1999; 이재창 등, 1983; 정영숙, 김향숙과 권수애, 1997; 조성남, 1991; 한상필,

1997; 홍승직, 1994),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서구화되면서 실제 세대간의 차이는 전통적인 가치차원보다는 서구적 가치차원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함축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서구적 가치차원에서 세대차이를 크게 지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성격특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차원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처럼(이재창 등, 1983; 정태연과 한광희, 2001), 젊은 세대는 서구문화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적, 감각적 및 퇴폐적인 특성을, 반면에 기성 세대는 전통 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폐쇄적, 권위적, 획일적, 현실적, 순종적 및 보수적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세대차이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으로서 크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점은 가치차원과 비교해 볼 때 성격특질차원에서 평가자간의 불일치가 낮다는 점이다. 한가지 가능한 이유는 이 두 유형의 판단이 관찰된 행동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정도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차원은 성격특질차원에 비해 관찰된 행동으로부터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가령, 한 개인이 물질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물질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단순히 관찰된 행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신에, 가치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보나 추론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모든 하위차원에서도 그렇듯이, 비전통적 성행동에 대하여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행동의 빈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에 대한 세대차이의 기존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김영희, 1993; 김혜원과 이해경, 2000; 장희숙, 1995).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평가자에 상관없이 결혼 후 부정한 성관계의 행동빈도가 세대간에 동일하다는 점이다. 비록, 기성 세대의 결혼전

성관계의 행동빈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았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젊은 세대의 현재의 행동과 기성 세대의 과거의 행동에 근거한 비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결혼후 부정한 성관계에 대한 비교는 상당히 현재의 시기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 모두 성에 대한 서구문화의 영향에 노출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특히, 젊은 세대와 비교해서 기성 세대는 결혼후 부정한 성관계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빈도에 있어서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젊은 세대보다도 기성 세대가 성에 대한 이중성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전통적 성행동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성 세대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자간 일치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 이유는 자녀가 기성 세대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젊은 세대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치차원과 성격특질형용사차원에서 부모가 젊은 세대를 평가하는 것보다 자녀가 기성 세대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면, 부모에 비해 자녀는 기성 세대가 6개 가치차원의 부정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했으며, 성격특질차원에서도 폐쇄적, 획일적, 퇴폐적 및 보수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속하지 않는 세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평가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주관적 안녕감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자녀보다 부모의 평정치가 더 컸지만, 평가자에 상관없이 기성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의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세대차이의 가능한 한 원인을 회귀분석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6개의 가치차원, 10개의 성격특성차원 및 소외의식이 주관적 안녕감을 40% 이상 설명했다. 소외의식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없었고 6개의 가치차원에서도 세대간 점

수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지만, 10개 중 6-7개의 성격특질차원에서는 기성 세대의 점수가 더 높았다. 결국, 전통적인 문화와 관련된 성격특질에서의 높은 수준이 기성 세대의 낮은 주관적 안녕감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높은 설명량은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예로, 나은영과 민경환, 1998; 나은영과 차재호, 1999; 이재창 등, 1983; 정태연과 한광희, 2001) 각 세대의 가치관이나 성격특질을 다룬 근거를 제공해 준다. 즉,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성격특질은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차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한국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외의식에서 세대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소외의식이 특정 세대의 특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이나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이러한 결과는 세대 차이가 평가자와 평가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평가대상자를 누가 어떤 측면에서 평가하느냐가 세대차이의 연구에 중요함을 함축해 준다. 가령, 일반적으로는 가치관, 성격특질 및 비전통적 성행동 차원에서 젊은 세대는 서구문화에 근거한 특성을 그리고 기성 세대는 전통문화에 근거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평가자간 일치와 관련하여 볼 때, 성격특질과는 달리 가치관 측면에서의 세대차이는 평가자에 따라 상당 수준 달랐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여러 차원간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으며, 각 차원도 단일문항으로 측정함으로써 측정 상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이들은 측정한 모든 변인에서 한국사회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한,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간의 차이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사회를 6개의 현실인식차원에서 평가할 때, 자녀는 기성 세대가 자신들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부모는 젊은 세대보다도 자신들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안정주의를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자녀와 부모의 평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 차원에서조차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그림 2 참조). 이들은 모든 차원에서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전통문화보다는 서구문화와 관련된 측면에서 더 강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한국사회를 무규범성이 높고 정치적 통제감이 낮은 사회로 평가했으며, 이러한 평가가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회적 표상이 서로 유사함을 함의한다. 사회적 표상은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 혹은 사건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체계로서, 세대차이의 한 원인은 세대간 사회적 표상의 차이에 근거한다(황상민과 김현정, 1996). 즉, 외부의 사건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주로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세대는 동일한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지만, 서로 다른 세대간에는 의사소통의 결여로 인해 상이한 사회적 표상을 갖기 쉽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현상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일반화되어 있을 경우, 그 사회에 대한 부정적 표상은 세대-특수적이기 보다는 세대-보편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높은 평가자간 혹은 세대간 일치의 근간일 수 있다.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그 사회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서구문화 및 전통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근거한 인식의 틀 속에서 두 문화의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근거한 행동을 평가할 때 그러한 평가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김병국, 1997; 나은영과 민경환, 1998; 함재봉, 1997). 사고나 가치체계와 실질

적 행동체계간의 이러한 유형의 이중성은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정체감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개인정체감(personal identity)과 그가 속한 사회나 집단에 근거해서 생기는 사회정체감(social identity)으로 구성되어 있다(Tajfel, 1982; Tajfel & Turner, 1979). 사회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정체감으로서 그 사회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신이 소속된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사회정체감 또한 심각한 손상과 혼란을 겪게 마련이다.

자녀와 부모 모두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이 중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앞서 살펴본 변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평가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사회를 6개의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무규범성이 높고 정치적 통제감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도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예측변인들이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을 약 20% 정도 설명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상황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무규범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법이나 도덕과 같은 규범이 기능하지 못하는 대신, 부정한 방식을 통한 편법이 그러한 규범을 대신함으로써 그 사회의 운용원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무규범적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편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치적 통제감이 낮은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무기력해지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세대간에는 차이점과 더불어 유사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세대간에 매우 유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와 관련해서 평가한 변인들이 각 세대와 한국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사회의 문화변동과정 속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들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추후의 연구가 매우 필수적임을 지적해 준다.

참고문헌

-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병국(1997). 반유교적 유교정치: 한국 정치담론의 모순. 전통과 현대, 1, 50-73.
- 김애순(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영희(1993).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과 이해경(2000). 남녀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성태도 현황에 근거한 성교육 방향의 모색. 2000년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239-261.
- 나은영(1995).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체면과 동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33-51.
- 나은영과 민경환(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나은영과 차재호(1999). 1970년대와 1990년대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신은숙(1976). 세대간의 갈등문제와 교육. 교육학연구, 14/1, 59-69.
-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명신(1998). 근로자의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 연

- 이재창, 최운보, 정영애와 최경선(1983). 청소년 의식 구조 및 형성배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훈구(1997). 행복의 심리학. 서울: 법문사.
- 임희섭(1980). 현대한국에 있어서의 가치지향의 변화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제3집, pp. 185-227).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장희숙(1995).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가치관 연구. 전환기에 선 한국인의 가치관(한림과학원편, pp. 155-213). 서울: 소화.
- 정영숙, 김향숙과 권수애(1997). 신세대 가정의 가족 가치관 연구.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한림과학원편, pp. 328-426). 서울: 소화.
- 정철희(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동중-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31(봄), 61-83.
- 정대연과 한광희(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회, 21(1), 1-14.
- 조성남(1991).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요약집, 66-73.
- 조혜선(1990).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진교훈(1997). 보편적 가치윤리학의 재구성과 가치관 연구.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한림과학원편, pp. 7-83). 서울: 소화.
- 차재호(1985). 70년대말에서의 가치, 태도 및 신념으로 본 한국인의 세대차. 사회심리학연구, 2/2, 129-168.
- 한상필(1997). 광고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한림과학원편, pp. 251-325). 서울: 소화.
- 함재봉(1997). 유교와 세계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전통과 현대, 1, 26-49.
- 홍승직(1994). 사회발전과 한국인의 가치문제. 서울: 일신사.
- 황상민과 김현정(1996). 사회적 표상의 개념으로 분석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 일상생활의 문제행동 빈도와 중요성 지각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229-250.
- Bengtson, V. L. (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358-371.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eal, A., & Groat, H. T. (1974). Social class correlates of stability and change in levels of alienation. *Sociological Quarterly*, 15, 548-558.
- Paulhus, D. (1983). Sphere-specific measures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53-1265.
- Retting, S., & Pasamanick, B. (1959). Changes in moral values among college students: A factorial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856-863.
-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8).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 차원고접수일 : 2001. 3. 10

최종원고접수일 : 2001. 9. 2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Evaluated by Undergraduates and Their Parents

Taeyun Jung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undergraduates ($n = 142$) and their parents ($n = 142$) perceive the youth and the adult generation, and the Korean society.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clear-cu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enerations on the 6 value and 10 personality trait dimensions, in the negative attitudes toward and frequencies of the 3 sexual misbehaviors, and in the subjective well-being. Two subgroups of judges were not consensual for all of those variables, which implies that generation gaps also exist in the perceptions of the two generations in some respects. However, there was large agreement in evaluating the Korean society as overall negative for the 6 evaluation variables, normlessness, political controllability and the sense of alienation.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6 value and the 10 personality trait dimensions and the sense of alienation explained a large portion of variance i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both generations. Also, the 6 evaluation variables, normlessness and political controllability explained largely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Korean society. Tho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ety.

Key word: Generation gaps, Between-generation similarities, perceiver effects on generation gaps, and view of the Korean society.